로컬플러스

'군산학' 프로그램 개강식

군산의 역사·문화 등 지역을 올바로 알고 배우기 위한 '군산학(群山學)' 2016년 프로그램 개강식이 8일 열렸다.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 수강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강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 군산학 연구책임자 공종구 군산대 교수를 비롯해 강좌별 교수진 등이 수강생들과 올해 첫 만남을 가졌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올해 군산학은 ▲군산의 선사시대 및 고대이야기 ▲개항 이후 군산의 근대 풍경 ▲건축을 통해 보는 군산의 역사 ▲설화와 전설로 읽는 군산의 역사 ▲군산의 유곽사 ▲최치원과 군산 등 모두 8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문동신 군산시장 · 시 간부공무원 새만금 내부개발 현장 방문

9일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공무원 및 언론인들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단은 박종대 새만금사업단장의 방수제, 농생명용지 매립과정, 환경생태용지, 승수로, 교량, 전망대 등 내부 개발공사 추진상황과 올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방수제 공구 현장을 둘러봤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새만금사업은 새로운 변화속에 미래를 모색해야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며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와 함께 군산시도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정보화마을 농촌 체험 운영

사계절 농촌을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망성면 어량, 여산면 두여, 성당면 두동편백 정보화마을에서 가족,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연중체험이 가능한 메타세콰이어목걸이 만들기, 쑥개떡만들기, 밀랍초만들기 등을 비롯해 계절별로 모심기, 고구마심기, 감자·고구마·양파·땅콩캐기, 딸기·매실·옥수수·감 따기, 청국장 만들기 등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체험문의 및 접수는 어량정보화마을(http://eoryang.invil.org/) ☎063)859-3837, 두여정보화마을(http://dy.invil.org/) ☎063)831-1168, 두동편백정보화마을(http://dd.invil.org/) ☎063)862-8600에서 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보건복지부 주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후속사업 계획 평가

원광대병원 전국 최우수센터 선정

원광대병원(병원장 최두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후속사업 계획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관 권역심뇌혈관센터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시행된 1기 사업 결과와 2기 후속사업 계획 평가에서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전국 1위의 최우수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성과에 따라 10억원의 국고보조금도 함께 지원받게 됐다.

특히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올해까지 실시 한 최근 4년간의 평가에서 연속 1위에 올라 심뇌혈관질환 운영사업에 있어 전국 최고의 센터임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평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산하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재활센터, 예방센터의 구조(조직, 인력, 시설, 장비, 정보체계), 과정(운영, 진료), 결과 등 환자 진료·치료 및 관리를 포함 한 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였다.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1기 사업으로 전북 권역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활동, 24시간 365일 당직 전문의 응급진료체계 운영, 환자·보호자 교육상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기재활치료 등 권역거점 전문질환센터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이어 올해부터 시작되는 2기 후속사업에서는 기존 1기 사업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한 주임상 경로 개발 및 보급, 취약지 지원, 지역사회 재활 연계 확대 등의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 한편 앞으로도 매년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 받게 된다.

최두영 병원장은 "보건복지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에서 원광대병원이 전국 1위의 성과로 최우수센터로 선정되고 국비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센터 개소 후 4회 연속 평가 1위의 영광속에는 김남호 센터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한 땀방울의 결과이다. 그동안 함께 사업을 진행한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관계자들과 한결같은 관심·사랑을 보내 주신 전북도민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4월부터 하수도사용료 인상

톤당 가정용 280원→350원 · 일반용 730원→310원 으로

익산시가 오는 4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한다.

익산시는 그동안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 익산시 역시 2017년까지 현실화율 60% 이상 달성을 권고 받았다.

현재 톤당 하수처리비용은 1,347원, 시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291원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1.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일시에 대폭 인상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폭은 가정용(1~10t)의 경우 톤당 280원에서 350원, 일반용(1~50t)의 경우 톤당 730원에서 910원 등 전체적으로 톤당 평균 73원 정도 인상된다. 월 10톤의 오수를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월 2,800원에서 월 3,500원으로 700원 정도가 인상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BTO)과 하수처리장 시설 정비 등 대규모 수질개선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발생한 수익은 이러한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로 계속적으로 투자될 것"이라며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시민들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해경, 정선명령 무시한 중국어선 2척 나포

군산해경이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중국어선 2척을 추격 끝에 붙잡았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8일 오전 8시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91해리(약 168.5km) 해상에서 EEZ 어업법 위반(정선명령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노OO(무허가, 30톤, 유망) 등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우리 EEZ 내측 해역에 진입한 것이 경비함 레이더에 포착돼 검문검색을 위해 수회에 걸친 정선명령을 했으나 무시하고 도주하다 선박에 강제 승선한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은 나포된 2척의 어선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강제 압송하는 한편, 각각 5천만원씩 최대 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주얼리 특성화사업단 디자인 개발 공지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주얼리 크리에이터 특성화사업단(미술대학 귀금속보석공예과)은 창의적 디자이너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디자인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발 공지 및 등록을 시행했다.

최근에 마무리된 이번 디자인 개발 공지는 특성화사업단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판매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선보였으며, 전문지인 주얼리신문에 총 46점의 제품 디자인 공고를 시행함으로써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고유 디자인 공고 번호를 부여받았다.

특히 공고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특허청이 공동 시행하는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통해 93점의 제품을 등록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비록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타인의 모방과 분쟁에 더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주얼리 크리에이터 특성화사업단은 (사)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와 특허청이 주관하는 D2B 디자인 페어 공모전 참가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강한 우수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으며, 2015년도 공모전에 참가한 4학년 조지은 학생은 2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입선하는 성과와 함께 디자인 출원까지 마쳤다.

디자인 개발 및 등록에 참여한 학생들은 "창작자로서 디자인 개발뿐만 아니라 디자인 권리 보호와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이를 통해 내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의회, 의료원장례식장 중축촉구 건의문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제193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군산시의회는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해빙기 주요사업장 점검과 2015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9일 열린 1차 임시회에서는 유선우 의원이 제안한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사업변경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전라북도 도청, 군산의료원에 송부했다.

유선우 시의원은 "군산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공공 의료권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공사를 중지하고 본래 취지대로 심혈관센터 기능보강으로 사업을 변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전라북도의 사업변경 재신청에 따른 패널티 우려 의견에 보건복지부를 방문 관계자와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 군산의료원이 여전히 사업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와 군산의료원에서 수익 사업의 속내 없이 공공 장례식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있던 장례식장 3개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도 사업의 효율성과 군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북농기원, 친환경잡곡 재배 교육 · 토론회 개최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정곤)은 "전북지역 친환경농업기반 및 친환경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8일 농업기술원 농심관에서 친환경농업연구회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16년 제1차 친환경잡곡 재배농업인 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이 지원하고 있는 품목별 연구회중 하나인 친환경농업연구회는 지난 2008년, 전북 친환경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결성되었다. 현재 200여명의 회원들이 친환경기술 및 마케팅 정보교류와 우리 도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육세미나와 저탄소농업 인증관련 추진전략 발표 및 전북지역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3건의 교육세미나는 친환경 잡곡 안정생산 기술(정기열 박사) 및 친환경 잡곡 병해충 방제기술(김현주 박사), 잡곡 유기재배 기술(단국대 윤성탁 교수)로, 친환경잡곡 재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를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익산=장양원기자